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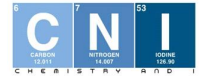
푸화학학!

# 목 차

I . CNI가 보는 CNI	3
II . 2018년을 돌아보며	4-23
(1) 실험활동	4-10
(2) 대외활동	11-18
(3) 세미나 진행	19-20
(4) 그 외 활동	21-23
III . 홍영국 선생님 사랑해요	24
IV . 마치며...	25



# I . CNI가 보는 CNI



## (1) CNI의 장 / 단점은?

- 정채진 : 하는 일이 많다. / 하는 일이 많다.
  - 한은혜 : 화목하다. / 말이 많다.
  - 김현진 : 화목하고 도움이 많이 된다. / 활동이 많다.
  - 하서린 : 화목하고 활동이 많다. / 없다.
- => 총평 : 화목하고 활동이 많다. / 말이 많고 활동이 많다.

## (2) 1년간 가장 기억나는 / 힘들었던 활동

- 이가영 : 전라북도 과학축전 / 전라북도 과학축전
  - 김지수 : 전라북도 과학축전 / 없음
  - 주다빈 : MT / 없음
  - 김현석 : 전라북도 과학축전 / 전라북도 과학축전
  - 박범성 : 전라북도 과학축전 / 전라북도 과학축전
- => 총평 : 전라북도 과학축전 / 전라북도 과학축전

## (3) 홍영국 선생님의 첫 인상

- 김현석 : 자이언티 닮았다.
  - 송원종 : 재밋게 생기셨다.
  - 김현진 : 우진이 닮았다.
  - 홍우진 : 나랑 닮았다.
  - 양이삭 : 못생김 ^^
- => 총평 : 못생겼다.

## Ⅱ. 2018년을 돌아보며

### (1) 실험 활동

#### ① 지시약 반응 실험



CNI에서 가장 처음으로 진행한 실험으로 중학교 과학에서 배운 기본적인 지시약들을 통해 종이꽃을 염색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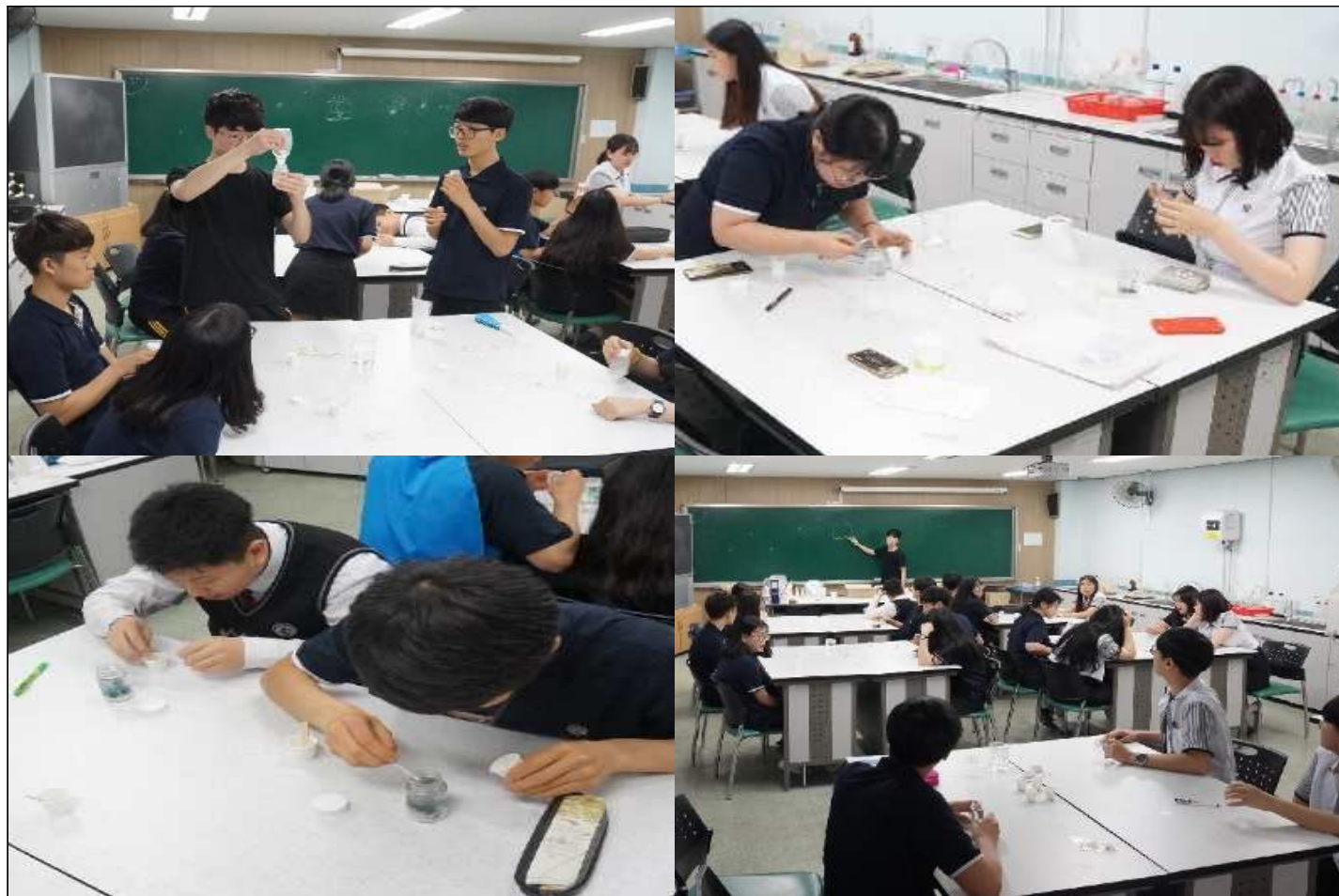
몇 명은 꽃 말고도 다양한 모양을 접어 만들었다.

염산과 염기성을 이용한 실험이어서 만드는 도중 손에 묻혀 따갑다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

그 와중에 홍영국 선생님의 꽃 접기 실력은 감탄의 연속이었다.



## ② 화학정원 실험 (교육청 과학축전의 부스 주제)



금속염을 삼투압의 원리를 이용하여 실제 정원처럼 자라듯이 만들어 나만의 화학정원을 만드는 실험.

식물들과 달리 매우 빠르게 자라나는 금속염들 덕분에 만드는 재미가 쏠쏠했다.

대부분은 금속염을 신중하게 넣고 반응을 관찰하며 화학정원을 예쁘고 정갈한 모양으로 완성시켰다.

물론 냅다 들이부은 사람들은 사실상 지옥정원이었다.

### ③ 분자요리 실험 (만약의 근원)



알긴산 나트륨과 염화칼슘을 이용하여 주스를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만드는 실험.

식용 가능한 실험이다 보니 다들 굉장히 높은 참여율과 열정을 보였다.

분자요리 만드는 것을 돌아다니면서 지켜보니 분자요리로 먹은 양보다 그냥 마신 주스양이 제공은 많았다.

이 때 만해도 그저 재미있는 실험이었는데..

#### ④ 나일론 합성 실험



어려운 이름들의 시약들을 가지고 나일론을 계면중합반응을 통해 합성하는 실험.

나무젓가락을 돌리면서 나일론을 계속 뽑아냈다.

시약이 독해서 뽑아내는 도중 손가락에 조금씩 묻힌 사람들은 얼얼하고 따가웠다고 불평했다.

반응이 꾸준히 계속해서 진행되다보니 다들 일정한 속도로 젓가락을 일정한 속도로 돌리는 것에 대해 숙련도가 늘었다.

아마 동아리에서 캠핑을 간다면 꼬치 태울 일은 없을 것이다.



## ⑤ 루미놀 반응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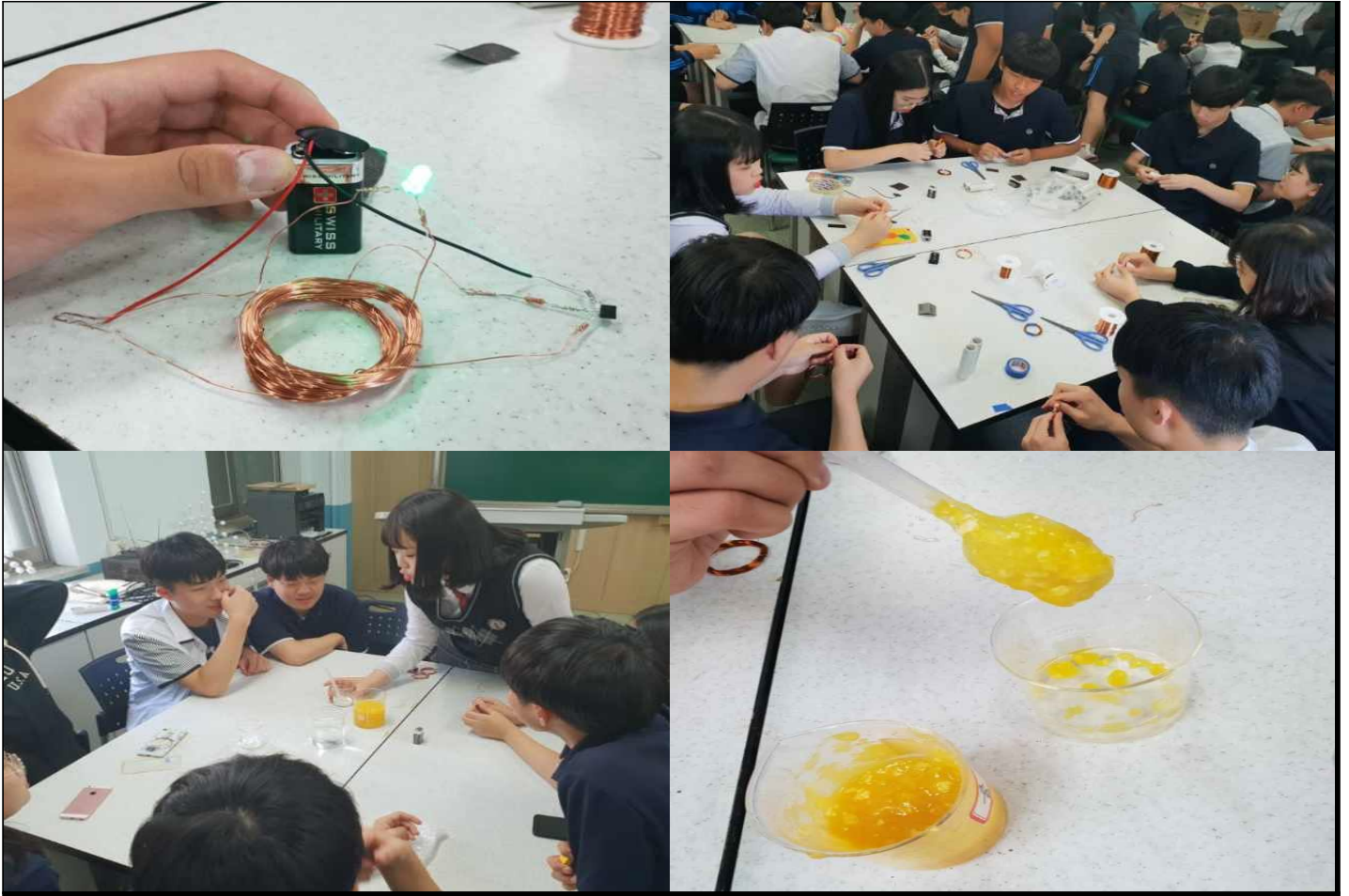
루미놀 용액과 혈흔 속 헤민이 반응하여 발광하는 실험.  
실제로 손가락을 따서 피를 내야하는 실험이다 보니 진행 중 비  
명과 횡설수설이 자자했다.

아마 가장 시끌벅적했던 실험이 아니었을까 싶다.  
손가락에서 피 뽑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물론 필자는 멘티 피를 뽑았다.



## ⑥ CNI & TUF 연합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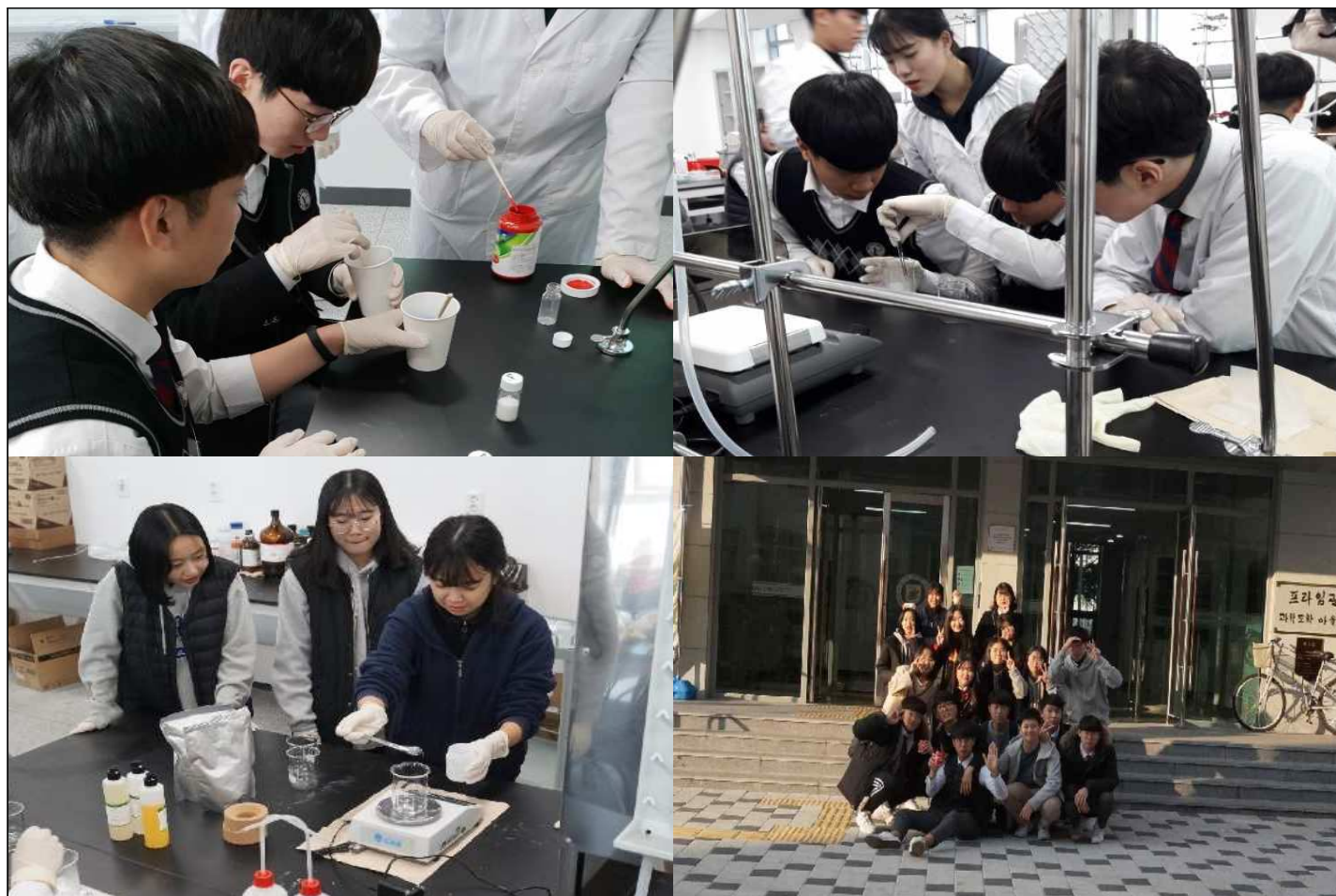
과학축전 동지들끼리 서로 전자기유도와 분자요리를 진행한 실험.

사실 스텔링 엔진을 제작하려 했으나 준비 부족으로 급하게 계획을 틀어 진행했다.

실험 시간이 끝나고 각 동아리에서 산 과자들을 갖고 과자파티를 열었다.

사실 주목적은 CNI와 TUF가 친목 다지는 시간과 ‘과자’였다.

## ⑦ 원광대학교 연합 실험 (3회)



원광대학교의 위드어스라는 동아리에서 담당하고 진행한 실험.

총 3주간 플러버 합성 실험, 나일론 합성 실험, 화장품 제작을 했다.

무엇보다 실험이 끝난 후 원광대학교에서 버거킹 와퍼와 콜라, 과일 세트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줘서 개꾸.. 아니 실험 후 지친 몸을 휴식하기에 매우 좋았다.

2018년간 진행한 실험은 모두 9가지로 다양한 이론을 탐구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화학동아리답게 화학에 중점을 맞춘 실험들을 진행하였으며 생기부 하나는 빵빵하게 채웠다. 역시 CNI.

## (2) 대외 활동

### ① 세계 뇌주간 행사



원광대학교에서 주최한 세계 뇌주간 행사에 가서 여러 주제로 한 강연을 들었다.

모든 교수님들이 뇌에 대한 다양한 소재들로 강연을 구성하셨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이었으나 잠자기에도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다.



## ② 남성여고 주관 익산시 고교연합 과학축전



익산 영등시민공원에서 열린 익산고교 과학축전에 분자요리를 주제로 참여했다.

첫 번째로 참여한 과학축전이기에 설렘 반 걱정 반이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며 전체적으로 잘 마치고 끝냈다.

중간 중간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볼 수 있었다.

마무리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서 남성여고 측에서 칭찬해줬다.

헤헤.

### ③ 익산교육지원청 주관 과학축전



익산 교육청에서 주최한 과학축전에 화학정원을 주제로 참여했다.

이 때 홍영국 선생님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셨으나 익산 고교연합 과학축전에서 쌓은 동아리원들의 노하우와 숙련된 기장의 노련미덕분에 다들 능숙하게 잘 진행했다.

사실 동아리에선 이게 마지막 과학축전인 줄 알았다. 그랬어야 했다.



#### ④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및 동물병원 견학



수의대학을 견학해 입학설명회와 내부 시설을 체험했다.

귀여운 강아지의 엑스레이 촬영도 해보고, 드라마에서만 보던 외과 수술 과정도 볼 수 있었다.

수의대에 존재하는 학과와 실제 학과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일을 맡는 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어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다.

무엇보다 병원에 있는 동물들이 굉장히 귀여웠다.

그리고 내부 시설 체험 중 선생님께서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하셨다.

이 날, 전라북도 과학축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통보받았다.



## ⑤ 과천과학관 및 서울대학교 견학



다양한 동아리에서 함께 간 견학이다.

사실 처음에는 세 동아리만 간다고 들었는데 전 날 보니까 예정 인원만 120명이 넘었다.

많은 만큼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었다.

과학관에서는 재미있는 갖가지 체험들과 볼거리들이 많아 다들 잘 돌아다녔다.

서울대학교에선 홍보대사 샤인의 홍보를 들었다.

모두들 경청하며 서울대학교의 위상과 동시에 우리의 현실을 알았다.

## ⑥ 전라북도교육청 주관 과학축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활동이다.

여태껏 과학축전 하루 진행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금, 토, 일 총 3일을 진행한 과학축전이였다.

주말이 갈려나감과 동시에 똑같은 실험을 수백 번 반복하다보니 정신이 피폐해졌다.

단순 노동의 무서움을 깨달았다.

그래도 막상 찾아오는 사람들이 즐겁게 체험하고 가는걸 보면 뿌듯했다.

내년 CNI 후배들이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꼭.



## ⑥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 견학



자랑스러운 홍영국 선생님의 모교, 전북대학교를 견학했다.  
전북대학교의 이 곳 저 곳을 돌아다니며 내부 시설들을 구경했다.

파릇파릇한 신입생들이 학교를 설명해주니 추억에 젖어 이리저리 둘러보며 사진을 찍으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찡했다.

총 7번의 대외활동을 하며 다양한 곳을 체험하고 경험했다.  
CNI는 화학동아리로서 화학 실험도 백미지만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도 빼놓지 않고 진행하는 모습도 빼놓지 않는다. 역시 CNI.



## ⑦ 바나나

우측 사진은 CNI를 대표하는 마스코트 와나나다.

현재 연재하고 있는  
웹툰 바나나툰에서 그  
대로 가져왔다.

2018년간 CNI를 대  
표하느라 참 고생 많  
았던 와나나.

보기만 해도 찡하다.

앞으로도 꼭 우리  
CNI의 마스코트의 자  
리를 지켜줬으면 좋겠  
다. 꼭꼭.



채용한 이유가 뭐냐고?  
귀여워서.

### (3) 세미나 진행

#### ① 화학자 세미나



화학자에 대해 조사하고 직접 PPT 자료를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다들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 중 화학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롤 모델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진로 세미나



자신의 진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조사하며 발표하는 시간이다.

2학년들은 1학년 때 설정했던 진로가 바뀐 사람이 많았다.

다들 성적의 벽에 막혔나보다. ㅠ

1년간 두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며 모든 동아리원이 발표를 맡았다.

서로 조사해온 내용들을 공유하며 동아리원들의 전체적인 지식과 경험을 늘렸다. 역시 CNI.



## (4) 그 외 활동

### ① 동아리 홍보전



모든 동아리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돌아다니는 날이다.

화학실과 들어오는 입구를 최대한 꾸민 뒤 신입생들을 현혹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지원서가 신입생이 보기에 무서웠는지 다들 종이만 가져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ㅜㅜ

## ② 동아리 오리엔테이션



동아리 1학년들이 뽑힌 후 가진 친목 시간이었다.

전체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잘 만든 PPT로 동아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각각 학년, 성별로 나누어 앞으로 나와 얼굴을 익혔다.

매콤한 떡볶이와 따끈따끈한 피자와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색한 파티를 열었다.

이 땐 동아리가 이렇게 지긋지긋할 줄 몰랐을 거다.



### ③ MT



여름 = 계곡의 향등식 성립에 의해 물놀이와 고기가 공존하는 공간 계곡으로 MT를 갔다.

다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놀았다.

아. 또 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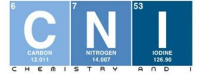
역시 동아리 하면 무엇보다도 친목을 다지는 재미있는 시간 아닐까?

그렇다면 OT와 MT는 꼭 빠질 수 없는 동아리 시간의 묘미다.

화목한 CNI에선 놀기도 잘한다. 역시 CNI.



### Ⅲ. 홍영국 선생님 사랑해요♥



#### (1) CNI의 담당선생님, 홍영국.

##### ① 섹시 큐티 더티 어글리 홍영국 선생님

아마도 다들 CNI하면 생각나는건 바나나 다음으로 홍영국 선생님일 것이다.

이름을 몰라도 지나가며 한 번 본 순간 그의 강력한 아우라로 인해 다들 정신이 혼미할 것이다.

왜 우리는 그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일까?

다양한 표정으로 뽐내는 못생김, 사랑스럽고도 통통한 허벅지, 동아리원에게 아낌없이 퍼부어주는 욕들 등 그의 매력을 나열하자면 인간의 시간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우리가 선생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매력은 전복제 일고등학교 학생들을 모두 아낌없이 챙겨주기 때문이 아닐까?

참선생의 공식인 홍영국 선생님.

이제 그의 매력에 빠져보도록 하자.



강렬하고 고혹적인 눈빛을 비추며 열정적으로 쭈쭈바를 빨고 있는 섹시영국. 이 사진만 보면 자꾸만 그의 쭈쭈바가 되고 싶은 욕망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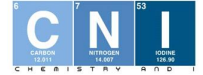


못생김을 다채롭게 표현하는 더티영국



이제는 특허 출시해도 될 것 같은 회색 점퍼와 청바지 조합. 전북제일고의 패션리더, 영국's winter season daily 패션이다. 필자는 1학년 때부터 줄곧 담임 선생님이로 만나 매 겨울마다 보았다. 이제는 저 패션 컨셉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매일 봐도 질리지 않는 건 영국선생님의 매력?

## IV. 마치며..



안녕하세요. CNI의 동아리 문집 전체적인 작성을 맡은 3기 기장 '최장혁'입니다.

동아리 문집의 대략적인 방향은 우리 CNI만의 느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동아리의 전체적인 설명과 중간 중간 딱딱하지 않도록 나름 재미있게 만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동아리의 마지막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의 CNI를 돌아보며 힘든 만큼 더 배워간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CNI라는 동아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차후 기장들에게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CNI 3,4기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CNI 화이팅!

CNI 3기 기장 -바나나-

안녕하세요. CNI 3기 부기장 '한은혜'입니다.

우리 CNI의 즐겁고 행복했던 한 해를 잘 보셨나요?

저희 기장이 유머감각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만들었으니 예쁘게 봐주세요!

이번 해에는 동아리 활동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물론 힘들었지만 이렇게 돌아보니 뿌듯합니다.

앞으로의 CNI를 이끌어줄 두 친구의 고생길이 험히 보이지만 뒤에서 열심히 응원할게요.

영국 선생님도 화이팅! 동아리는 역시 CNI!

CNI 3기 부기장 -CNI 요정-



안녕하세요. CNI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홍영국’입니다.

1년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졸업생 중에 한 학생이 그러더군요.

" 쌤ㄴ 사고 애지간히 치셨네요~ "

사고는 과학축전을 3번이나 진행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드리고 싶어서 과제를 가져왔는데 다른 동아리에 비해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미안해요~

그래도 아마 다들 색다른 추억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런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동아리원들 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단합을 도모할 것 같다는 기대도 살짝은 하고 있지만 저만의 착각이겠죠?

덤으로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에 쓸 만한 충분한 경험이 되었을 겁니다.

내년에는 더욱 체계적인 실험과 대외 활동으로 여러분의 유의미한 동아리 활동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와주셔야하겠죠?

전북제일고등학교에서 최고의 동아리하면 CNI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파이팅 합시다!

CNI 담당선생님 -세균-

